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홍진국 클레멘스, 한영주 리드비나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 주 미사 독서: 박민웅 프란치스코 사비에르, 조은영 베다	다음 주 종합
금주 미사 복사: 김지원 카린	
다음 주 미사 복사: 신승원 로이	봉헌봉사:
금주 미사 해설: 우명희 카타리나	김태진 하상바로로
다음 주 미사 해설: 김보미 로사	다음 주 봉헌봉사:
반 주: 조은영 베다, 황지혜 레지나	권민호 바로로
회 계: 한진 베드로, 한성필 요한	* 매월 마지막 주는
친교실 정리: 2 구역	2 차헌금이 있습니다.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친교 /간식 모임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미정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 게시판 참고)
교리 모임	미정
골프 모임	매주 일요일 오전 9 시(장소: Tumbledown Trail)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의 일화입니다. 1492 년 그는 예수님의 품위를 잘 드러낼 것 같은 19 세의 젊은이 피에트로 반디네리를 모델로 예수님을 그립니다. 그 뒤 6 년 동안 11 명의 제자들을 그렸고, 마지막으로 배반자 유다 이스카리옷의 특징을 잘 담을 수 있는 모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 찬 어느 부랑자의 얼굴에서 유다를 느꼈고, 그를 모델로 배반자의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랑자는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피에트로 반디네리라고 밝힙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은 죄인을 성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성인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365 일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지나가는 시간들을 그냥 바라보지만 맙시다. 예수님의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공공이 되새기셨던 성모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되짚어 가며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더욱 의미 있게 느껴 보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지나간 세월이 모여 얼굴 구석구석에 평화로 가득 찬 인격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합시다.	

주임 신부 유성모 요셉 (608) 233-1114 사목회장 김태진 하상바로로 (608) 628-7977 (백)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 kccmwi@gmail.com 2013년 1월 1일
<제 1 독서> 민수기 6,22-27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4,4-7	
화답송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거레들을 이끄시니, 거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6-21 그때에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 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공공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알려 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또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오늘의 성가] 시작:239 봉헌:210 성체:160 파견:249	



제 46 차 세계 평화의날 담화문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해마다 새해에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촉진하였던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막 50 주년인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모든 이를 위한 평화 증진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유혈 분쟁과 전쟁의 위협, 극심한 빈부 격차,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만연하여 우리를 걱정스럽게 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는 평화를 이루려는 수많은 노력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참 행복은 약속들입니다. 참 행복은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요구하는 것들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메시아의 선물이며 인간의 노력으로 이뤄집니다. 이 평화는 인간의 잣대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토대 위에서 이성적이고 도덕적으로 공존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는 진리, 자유, 사랑, 정의를 토대로 인간의 참여를 요구하며, 자신이 지닌 이성적 본성에 따라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참다운 평화의 일꾼은 생명을 온전히 사랑하고 수호하며 증진하는 이들입니다. 평화는 꿈이나 이상향이 아니라 실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평화를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낙태와 안락사 등은 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태아를 비롯하여 가장 힘없는 이들의 생명권을 수호하지 않고서 어떻게 평화 실현이나 민족들의 발전, 환경 보호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개인과 공동체의 종교 자유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노동의 권리 역시 오늘날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빌미로 노동이 점점 더 경시되고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위한 근본 선으로서 노동의 개념을 강화하는 윤리 원칙과, 정신적 가치에 바탕을 둔 새로운 노동관이 필요합니다. 이윤과 소비의 극대화를 요구하는 지금의 지배적인 경제 모델은 극심한 불평등을 자아냅니다. 오로지 경쟁력만으로 개인을 평가하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일꾼은 공동선을 위하여 경제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이익을 넘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심각한 식량 위기에 관심을 쏟아 평화의 선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 공지사항

1. 미사 안내
 - 1 월 5 일 오후 5 시: 유성모 요셉 주임 신부님 부임 미사
 - 미사 후 행사 및 식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2. 미사 후 공동체 식사가 있습니다.
 - 준비해 주신 2 구역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예비자 교리 모집 안내
 - 예비자 교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유신부님 혹은 사목회에 알려주십시오.
4. 미사 전 기도 안내
 - 미사 시작 15 분 전 부터 묵주기도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 1 월 5 일 미사 부터 시작합니다.
5. 매디슨 공동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평화를 위해서는 가정과 수도 공동체, 문화 단체, 학교와 같은 단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정은 생명을 증진해야 하는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느님 사랑의 기준에 따른 인격 성숙의 못자리이며, 도덕과 신앙 교육을 통해 생명과 사랑의 문화를 촉진하는 미래의 일꾼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입니다. 아울러 모든 민족들이 형제애를 나누며, 그토록 갈망하는 평화가 이룩되기 위해선 평화의 일꾼들에 대한 교육이 무척 중요합니다. 활동, 연민, 연대, 용기, 인내를 담고 있는 평화 교육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일구며 선의를 지니고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잘못과 불의를 인정하고 화해를 향하여 함께 나아갑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며, 인간의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참된 믿음을 가져다주시도록 하느님께 간청합니다.

교황 베네딕토 16 세